

##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연구 : 2000년 이후 국내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손수미\*, 송은실\*\*, 남정민\*\*\*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박사학위 논문 및 등재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박사학위 논문과 등재 학술지 논문이 겹치는 경우 등재 학술지 논문만 대상으로 하여 총 51편의 논문을 1차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상관계수 등 통계수치가 없어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한 12개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평균 효과크기 분석, 출간오류 분석, 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효과크기의 분석을 forest plot로 확인한 결과 모두 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출간오류를 funnel plot로 분석한 결과 수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되면서 출간오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인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성과에 있어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서 기업들은 CEO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까지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과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기업성과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기업가정신, 기업성과, 메타분석, 재무성과, 비재무적성과

## I. 서 론

### 1.1 연구목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환경의 변화는 많은 경제 주체 가운데 특히, 기업에게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이제 기업들은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변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조직이 있고, 이러한 조직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정연웅 외, 2014). 경영자는 경쟁력확보와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별

\* 주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careersm01@naver.com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cloto31@naver.com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교수, namjm@dankook.ac.kr

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경영혁신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상현·홍아름, 2017).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기업을 효과적으로 혁신시키고, 대의적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이며, 본질적으로 경영성과를 증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Drucker, 1985). 기업가정신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많은 논문에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요소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체계적 표본 선택에 의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은 상당히 높으며, 왜곡과 오류에 대하여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 연구주제와 같은 상관관계 계수가 있는 3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 개별 연구들의 계량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들의 목표설정이나 방향성 제시 및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 Schumpeter(1950)는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immons(1990)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한다고 정의하였다. Drucker(1985)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위험을 극복하는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사업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iller(1983)는 기업가의 특성을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Covin & Slevin(1991)은 진취적이며 혁신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 창출이 가능한 CEO에게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분류하였고(원혜숙, 2014, 허봉선, 2015, 최문경, 2015, 이승일, 2017), 임진혁(2017)은 혁신성, 자율성, 경쟁적 적극성, 위험감수성, 미래지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으로 선행연구의 관점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성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Miller(1983)는 기존의 확립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회와 신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기업의 노력이며, 담대하고 다양한 행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Lumpkin & Dess(1996)는 기업의 성장과 전략적인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뛰어넘기 위해 관행 또는 기존기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로 규정하였으며, Lassen, Gertsen & Riis(2006)은 혁신성을 신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창의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할 때 혁신성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장 지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진취성은 시장 내 신규 제품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변화를 감지하여 진보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함으로써 경쟁사보다 먼저 행동하고 시장을 주도하려는 성향이다(Miller, 1983). Lumpkin & Dess(1996)는 높은 진취성은 기업에게 새로운 경쟁의 방식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장,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선점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김우중(2016)은 신규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시장변화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진취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진취성은 신규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자보다 먼저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하여 시장을 주도하려는 기업의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감수성은 사업의 실패에 따른 재무적인 손해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 기꺼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려는 성향으로, Miller(1983)는 불확실성, 위험도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Kanter(1983)는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제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박기용(2011)은 위험감수성을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거나 도전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정곤(2017)은 빠른 변화의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진취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송은실·박준혁·남정민, 2021).

본 연구도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요소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에 초점에 맞추어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2.2 기업성과

기업성과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총체적인 산물이다. 즉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며(강병오, 2011),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 및 수익성, 장기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영성과 중 하나이다.

기업성과 측정은 기업의 현재 영업 진행 상황 판단의 근거가 되며 조직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책 결정이나 투자 결정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경영자나 주주 및 기업 관련자는 성과측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측정에 대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업성과를 위한 객관적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전통적 성과측정은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복잡한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시점에 재무성과만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단순한 수치만을 통해 접근하는 재무적 성과측정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성과뿐 아니라 재무성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비재무적 성과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의 측정이 균형적인 성과측정으로 적용하고 있다(고봉상, 2004).

MohrandNevin(1990)은 만족도와 재무적 성과를 성과척도로 제시하면서 경로 성과는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단계는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척도이고, 다음 단계는 재무적 성과와 같은 정량적 척도라고 하였다(황준기·윤지환, 2006). 일반적으로 기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되는데 재무적 성과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며 비재무적 성과는 고객이나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인 심리적 성과라고도 한다(김상진, 2006). 김명숙·엄현정·양영석(2021)은 기업성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분하고, 재무성과를 매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률로 분류하였으며, 비재무성과는 종업원 수, 고객만족도, 직무만족, 성장 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1> 기업성과 구성요소

| 연구자                    | 내용                                                   |
|------------------------|------------------------------------------------------|
| Bonma & Clark(1988)    | 재무적 요소 : 수익성, 매출액, 시장점유율                             |
| Hewett & Bearden(2001) | 재무적 요소 : 수익성, 매출액, 시장점유율                             |
| 조현진(2006)              | 재무적 요소 : 수익성, 성장성, 총매출액                              |
| 김명숙·엄현정·양영석(2021)      | 비재무적 요소 : 고객만족도, 직무만족, 성장 가능성                        |
| 장원섭(2008)              | 비재무적 요소 :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 등 조직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되는 성과 |
| 황보윤·배근석(2017)          | 비재무적 요소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호도, 성장잠재력, 기업 인지도         |

\* 출처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구성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성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의 요소 중 어떠한 요소들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2.3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Covin & Slevin(1994)은 먼저 기업행동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에 따라 기업가적 태도로서 혁신 추구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환경, 전략, 조직의 내적인 변수와의 관계 검증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기업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정우진, 2012; 정준아·권규미·반성식, 2007). Zahra(1991)는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수익성, 성장성 간에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성필석(2019)은 제약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보완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다. 김상화(2022)는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성미(2020)는 위험감수성이 기업가의 무리한 도전으로 인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어 기업 성장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와의 선행연구를 보면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상황에 따라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기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어떠한 특성이나 구성 요인들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기업성과를 높이며 질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3.1 메타분석 개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개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1차적 분석(primary data analysis),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2차적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을 메타분석이라고 한다. 메타분석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소수의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여 현상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개별 연구마다 연구 대상이나 방법에 의해 그 결과가 이질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황성동, 2015). 메타분석에서는 연구결과들을 수량적으로 통합·비교가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공통 단위로 변환시켜 높은 값을 효과크기라고 하며, 이러한 효과크기는(effect size)로 변환하기 위해 사례 수, 상관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값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계수(r)를 Fisher's Z 값으로 전환하여 활용분석 하였으며, 공식은 [표 2]와 같다.

<표 2> Fisher's Z 전환 계산 공식

| 데이터                         | Correlational data                                        | V                                            |
|-----------------------------|-----------------------------------------------------------|----------------------------------------------|
| correlation coefficient (r) |                                                           | $V_r = \frac{(1-r^2)^2}{n-1}$                |
| convert to                  | $Fisher's Z = 0.5 \times \ln\left(\frac{1+r}{1-r}\right)$ | $V_z = \frac{1}{n-3}$<br>$SE_z = \sqrt{V_z}$ |
| convert back to             | $r = \frac{e^{2z} - 1}{e^{2z} + 1}$                       |                                              |

출처 : 황성동(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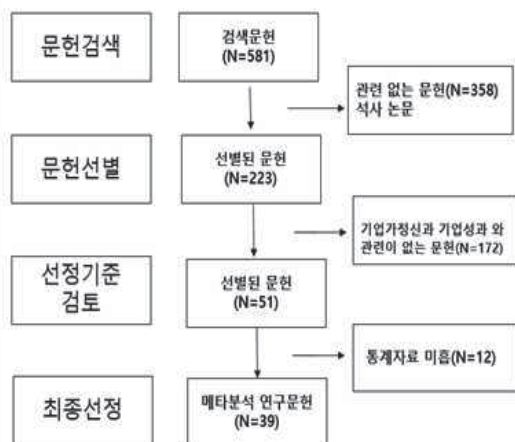
### 3.2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에서 연구된 박사학위 논문 및 등재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하되, 박사학위 논문과 등재 학술지 논문이 겹치는 경우 등재 학술지 논문만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 KISS, 스콜라, 네이버 학술정보를 이용하였다.

먼저, 기업가정신, 기업성과를 키워드로 검색 시 58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출된 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박사학위 논문 223개를 선택하고, 연구의 목적 상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가정신 그리고 기업성과의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223개 논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없는 연구 172개를 제외하고 51개의 연구가 선별되었으며, 데이터가 없는 논문 12개를 제외하고 최종 39개 논문을 선별하였다.

최종 선정된 39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요소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기업성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기업성과(재무적/비재무적)에 대한 상관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데이터 수집과정

### 3.3 자료 분석 방법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된 39개의 논문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Excel에 입력하였고, 입력된 데이터는 R-Studio Version 4.2.1 software를 사용하여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 3.3.1 효과크기

효과크기는 개입의 효과(the impact of an intervention)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는 상관관계 계수  $r$ 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측정된  $r$  값에 따라 0.1은 작은 크기, 0.3은 중간기, 0.5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판단한다(Cohen, 1988). 상관효과크기는 상관계수  $r$ 을 Fisher's Z로 변환하여 측정하게 되면 Fisher's Z로 변환한 값이  $r$  값보다 더 정규분포를 만들어 평균효과크기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Borenstein et al., 2009; 황성

동, 2015). 평균효과크기 값에서 95%의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효과크기는 유의하다 볼 수 있으며(Borenstein et al., 2009), 신뢰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구간이 짧을수록 정밀한 효과를 보인다.

#### 3.3.2 평균효과크기

각 개별연구에서 효과를 통합(cambine) 할 때는 어떤 연구가 모수(the population parameter)를 추정하는데 더 정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개별연구의 효과크기에 가중치를 곱한 다음 이를 합한 값을 전체 가중치로 나누게 되면 전체 효과크기, 즉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메타분석의 기본 결과는 Forest plot을 통해 제시되는데 여기서는 각 연구의 효과크기,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 가중치 및 평균효과크기 등이 제시된다(황성동, 2022).

#### 3.3.3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

메타분석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은 평균 효과크기(mean effect)를 계산하는 방식(computational model)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집단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이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 3.3.4 이질성 검사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을 하게 되면 모집단 효과크기 간의 차이(differences in effects sizes)를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고 부른다. 즉, 연구 간의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통계치(heterogeneity statistics)로 활용되는 것으로  $\tau^2$ ,  $I^2$ 를 이해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testdf homogeneity)에 사용되는 Q값과 df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Q값은 메타분석에 있어서 각 효과크기를 관찰된 분산을 의미하며 이는 표본오차 분산과 실제 연구 간 분산을 모두 포함하는 총 분산을 의미한다. Q통계치는 영가설( $H_0$ : 연구 간 실제 분산=0 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동일하다)을 검증할 따름이며, 사용된 연구(k)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



다. 한편 df(자유도)는 각 연구가 추정하는 모집단의 효과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분산(expected variation)값이다. 따라서, (총 분산-기대 분산=실제 분산)이므로  $Q-df$ (총 분산-기대 분산)는 실제 연구 간 효과크기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정도를 의미한다.  $\tau^2$ 는 실제 분산을 나타내는 절대값으로써 효과크기의 단위 (예:표준편차)와 같은 단위로 표현된다(황성동, 2022).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가 있는데 이는 총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tau^2$ 와는 달리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I^2$ 가 25%이면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하고, 50%이면 중간 크기 정도, 그리고 70% 이상이면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질성에 대한 판단은 총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의 비율( $I^2$ )이 50%이상이고 동질성 검증 통계치  $Q$ 값의 유의확률( $p$ -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Higgins & Green, 2011).

### 3.3.5 출간오류 분석

출간오류의 일반적인 의미는 연구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연구결과가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못하는 오류(bias)를 의미한다(Higgins & Green, 2011). 하지만 메타분석에서는 “출간(publication)이 의미하는 바는 체계적인 리뷰에 포함될 연구를 선정하는 전체 과정(the whole process)이다”라는 주장이 있다(Copas & Shi, 2000). 따라서 출간오류는 단순히 출간 여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로(예; 연구선정 과정에 있어서 오류, 메타분석에 포함된 데이터 오류 등)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간 오류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째, 오류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인지, 둘째, 오류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는 않지만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지, 셋째, 오류가 심각해서 전체 연구결과가 의심스러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으로 내릴 수 있다(황성동, 2022).

### 3.3.6 출간오류 조정

출간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오류는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Duval & Tweedie(2000)가 개발한 trim-and-fill 기법을 이용하여 누락되었다고 가정된 연구들을 포함시켜 원래 funnel plot

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조정하게 되면 risk ratio는 약간 조정이 된다.

이 방법은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평균효과크기를 실제로 수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간오류에 대해 원래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적합하느냐(robust)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Duv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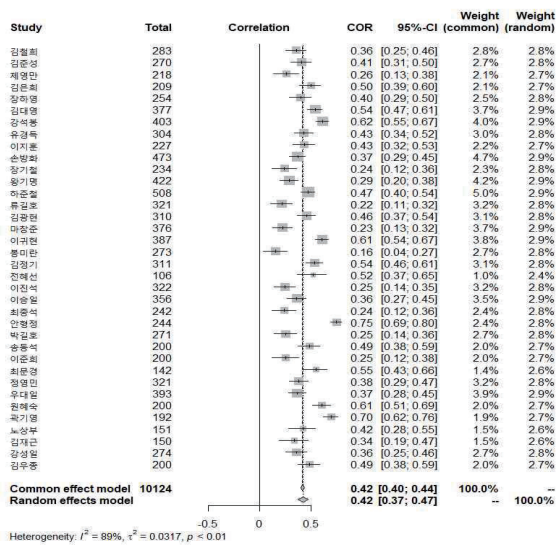
## IV. 분석 결과

### 4.1 평균효과크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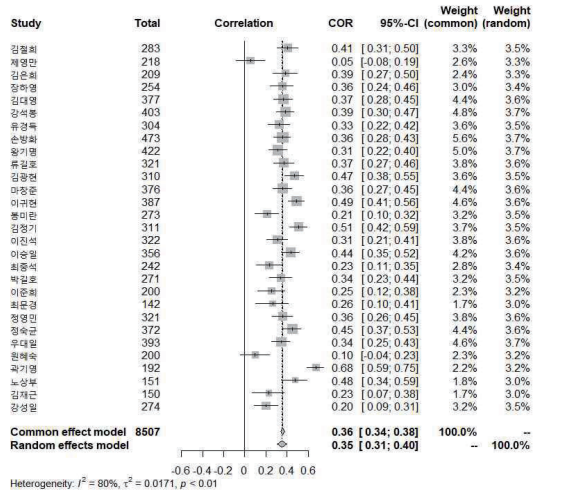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개별연구의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성에 대한 효과크기 36개, 위험감수성에 대한 효과 크기 29개, 진취성에 대한 효과크기 23개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혁신성에 대한 효과크기 22개, 위험감수성에 대한 효과크기 18개, 진취성에 대한 효과크기 14개를 분석하였다. 연구 논문의 상관계수  $r$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lt;표 3&gt;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 간 선행연구 분석 결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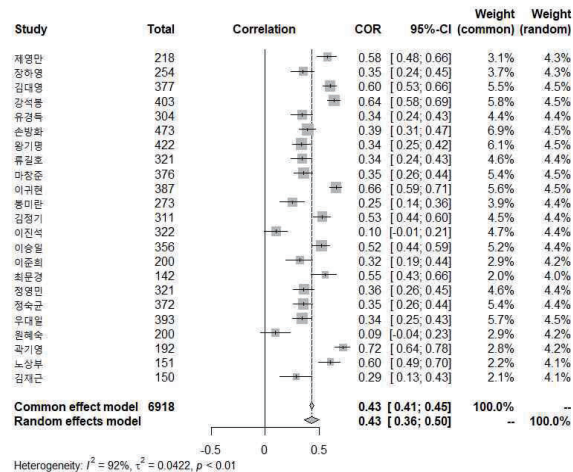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 n   | r      |           |       |        |           |       |
|------|-----|------|-----|--------|-----------|-------|--------|-----------|-------|
|      |     |      |     | 재무성과   |           |       | 비재무성과  |           |       |
| 연번   | 저자  | 출판일  |     | 혁신성    | 위험<br>감수성 | 진취성   | 혁신성    | 위험<br>감수성 | 진취성   |
| 1    | 김철희 | 2022 | 283 | 0.358  | 0.408     | —     | 0.638  | 0.521     | —     |
| 2    | 김준성 | 2022 | 270 | 0.41   | —         | —     | 0.356  | —         | —     |
| 3    | 정수철 | 2022 | 388 | —      | —         | —     | 0.565  | 0.507     | 0.585 |
| 4    | 제영만 | 2022 | 218 | 0.262  | 0.054     | 0.577 | —      | —         | —     |
| 5    | 김은희 | 2022 | 209 | 0.501  | 0.388     | —     | —      | —         | —     |
| 6    | 장하영 | 2022 | 254 | 0.401  | 0.356     | 0.35  | —      | —         | —     |
| 7    | 김대영 | 2022 | 377 | 0.544  | 0.366     | 0.6   | 0.654  | 0.467     | 0.657 |
| 8    | 강석봉 | 2021 | 403 | 0.616  | 0.387     | 0.638 | —      | —         | —     |
| 9    | 유경득 | 2021 | 304 | 0.434  | 0.328     | 0.339 | 0.489  | 0.363     | 0.477 |
| 10   | 이지훈 | 2021 | 227 | 0.435  | —         | —     | —      | —         | —     |
| 11   | 손방화 | 2020 | 473 | 0.373  | 0.358     | 0.393 | —      | —         | —     |
| 12   | 장기철 | 2020 | 234 | 0.244  | —         | —     | 0.227  | —         | —     |
| 13   | 왕기명 | 2020 | 422 | 0.29   | 0.313     | 0.336 | 0.427  | 0.229     | 0.485 |
| 14   | 하준철 | 2020 | 508 | 0.473  | —         | —     | 0.642  | —         | —     |
| 15   | 류길호 | 2020 | 321 | 0.216  | 0.371     | 0.34  | —      | —         | —     |
| 16   | 이석근 | 2020 | 648 | —      | —         | —     | 0.206  | 0.374     | —     |
| 17   | 김광현 | 2019 | 310 | 0.461  | 0.471     | —     | 0.697  | 0.697     | —     |
| 18   | 마창준 | 2019 | 376 | 0.225  | 0.361     | 0.354 | 0.172  | 0.211     | 0.175 |
| 19   | 이귀현 | 2019 | 387 | 0.611  | 0.493     | 0.655 | —      | —         | —     |
| 20   | 봉미란 | 2019 | 273 | 0.156  | 0.212     | 0.251 | 0.374  | 0.273     | 0.407 |
| 21   | 김정기 | 2019 | 311 | 0.539  | 0.51      | 0.529 | —      | —         | —     |
| 22   | 전혜선 | 2018 | 106 | 0.523  | —         | —     | 0.401  | —         | —     |
| 23   | 이진석 | 2017 | 322 | 0.25   | 0.31      | 0.1   | 0.4    | 0.23      | 0.39  |
| 24   | 이승일 | 2017 | 356 | 0.362  | 0.436     | 0.521 | 0.322  | 0.42      | 0.406 |
| 25   | 최중석 | 2017 | 242 | 0.241  | 0.232     | —     | 0.27   | 0.26      | —     |
| 26   | 안형정 | 2017 | 244 | 0.751  | —         | —     | 0.599  | —         | —     |
| 27   | 박길호 | 2017 | 271 | 0.254  | 0.342     | —     | —      | —         | —     |
| 28   | 송동석 | 2017 | 200 | 0.49   | —         | —     | —      | —         | —     |
| 29   | 이준희 | 2016 | 200 | 0.254  | 0.254     | 0.32  | 0.227  | 0.205     | 0.114 |
| 30   | 최문경 | 2015 | 142 | 0.553  | 0.264     | 0.553 | 0.27   | 0.15      | 0.27  |
| 31   | 정영민 | 2015 | 321 | 0.384  | 0.359     | 0.357 | 0.461  | 0.394     | 0.487 |
| 32   | 정숙균 | 2015 | 372 | -0.021 | 0.451     | 0.353 | 0.124  | 0.29      | 0.168 |
| 33   | 우대일 | 2015 | 393 | 0.369  | 0.343     | 0.343 | —      | —         | —     |
| 34   | 원혜숙 | 2014 | 200 | 0.609  | 0.099     | 0.095 | -0.093 | 0.54      | 0.338 |
| 35   | 곽기영 | 2013 | 192 | 0.699  | 0.676     | 0.719 | 0.667  | 0.67      | 0.719 |
| 36   | 노상부 | 2011 | 151 | 0.425  | 0.477     | 0.603 | —      | —         | —     |
| 37   | 김재근 | 2010 | 150 | 0.338  | 0.229     | 0.286 | —      | —         | —     |
| 38   | 강성일 | 2007 | 274 | 0.361  | 0.203     | —     | —      | —         | —     |
| 39   | 김우중 | 2016 | 200 | 0.49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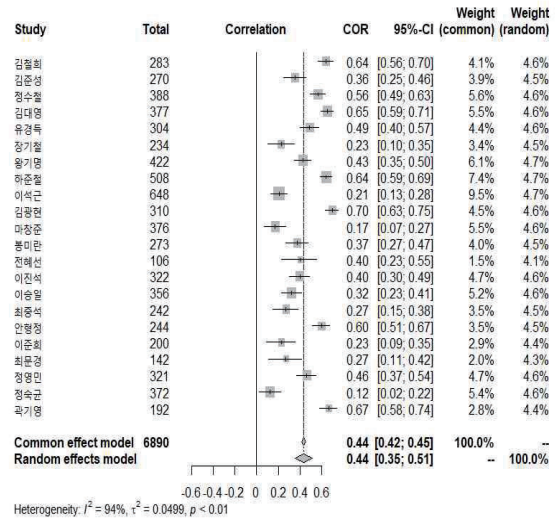
#### ① 혁신성 → 재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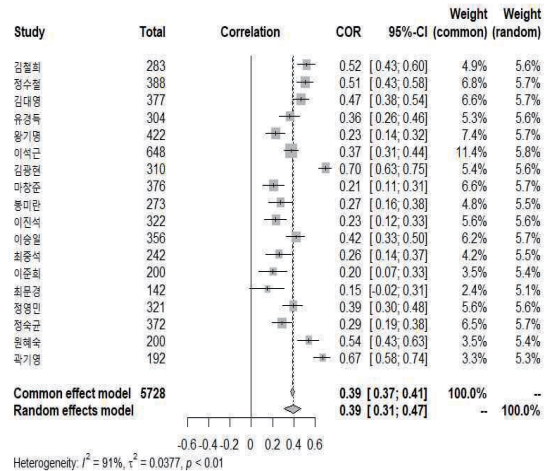
#### ② 위험감수성 → 재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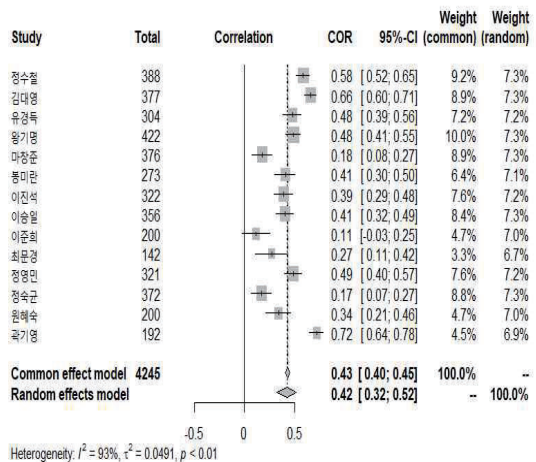
#### ③ 진취성 → 재무성과



#### ④ 혁신성 → 비재무성과



#### ⑤ 위험감수성 → 비재무성과



#### ⑥ 진취성 → 비재무성과

<그림 2>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Forest Plot



효과크기는 상관관계 계수  $r$ (zoo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값  $r$  값에 따라 0.1은 작은 크기, 0.3은 중간 크기, 0.5 이상은 큰 크기로 판단한다(Cohen, 2010).

평균효과크기 값에서 95%의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효과크기는 유의하다 볼 수 있으며(Borenstein et al, 2009), 신뢰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구간이 짧을수록 정밀한 효과를 보인다(황성동, 2015).

<표 4> 기업가정신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크기

| 요인    | k  | n     | r    | 95% CI |       | I <sup>2</sup> (%) | Q      | P    |
|-------|----|-------|------|--------|-------|--------------------|--------|------|
|       |    |       |      | Lower  | Upper |                    |        |      |
| 혁신성   | 36 | 10124 | 0.42 | .37    | .47   | 89.4               | 330.91 | 0.00 |
| 위험감수성 | 29 | 8507  | 0.35 | .31    | .40   | 80.4               | 143.10 | 0.00 |
| 진취성   | 23 | 6918  | 0.43 | .39    | .50   | 92.1               | 277.19 | 0.00 |

재무성과에 대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은 <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42$ ( $k=36$ ,  $n=10124$ ), 신뢰구간(CI) 0.37~0.47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효과크기는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이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89.4%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재무성과에 대한 위험감수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감수성과 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35$ ( $k=29$ ,  $n=8507$ ), 신뢰구간(CI) 0.31~0.40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80.4%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재무성과에 대한 진취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취성과 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43$ ( $k=23$ ,  $n=6918$ ), 신뢰구간(CI) 0.39~0.50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92.1%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표 5>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크기

| 요인    | k  | n    | r    | 95% CI |       | I <sup>2</sup> (%) | Q      | P    |
|-------|----|------|------|--------|-------|--------------------|--------|------|
|       |    |      |      | Lower  | Upper |                    |        |      |
| 혁신성   | 22 | 6890 | 0.44 | .35    | .51   | 94.3               | 365.69 | 0.00 |
| 위험감수성 | 18 | 5728 | 0.39 | .31    | .47   | 91.0               | 189.87 | 0.00 |
| 진취성   | 14 | 4245 | 0.42 | .32    | .52   | 93.2               | 192.12 |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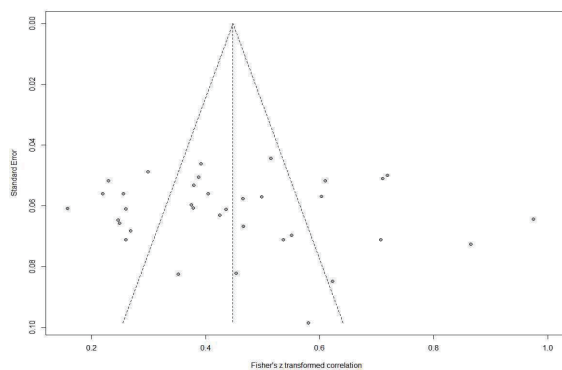
비재무성과에 대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은 <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비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44$ ( $k=22$ ,  $n=6890$ ), 신뢰구간(CI) 0.35~0.51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성과 비재무성과에 대한 효과크기는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이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94.3%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비재무성과에 대한 위험감수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은 [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감수성과 비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39$ ( $k=18$ ,  $n=5728$ ), 신뢰구간(CI) 0.31~0.47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험감수성과 비재무성과에 대한 효과크기는 Cohen(2010)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이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91.0%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비재무성과에 대한 진취성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은 [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취성과 비재무성과와의 상관계수는  $r=0.42$ ( $k=14$ ,  $n=4245$ ), 신뢰구간(CI) 0.32~0.52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취성과 비재무성과에 대한 효과크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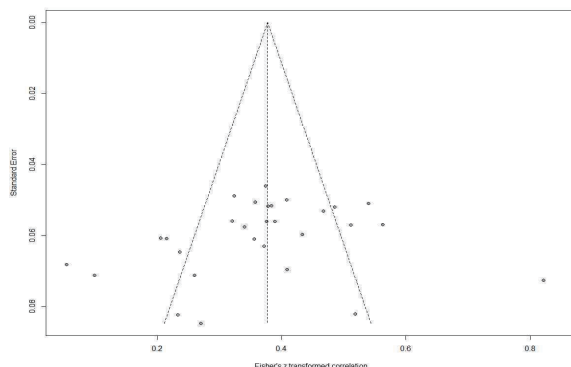
Cohen(2010)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이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지수  $I^2$ 는 93.2%로 이질성이 매우 높다. 동질성 검증 통계치 Q값의 유의확률(p-value)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기업의 CEO와 직원의 사내 기업가정신을 동일한 기업가정신으로 변수를 하였으며 기업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업종별로 모두 포함을 하여 동일 변수로 진행하였다.

## 4.2 출간오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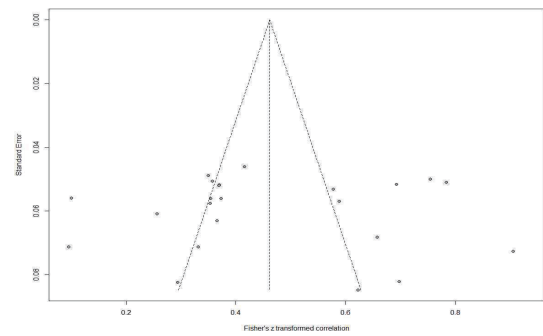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전체 연구결과를 대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출간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와의 데이터는 funnel plot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후 Egger et al.(1997)의 회귀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funnel plot은 오류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한 도구이며, 'small-study effect'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tern, Egger, & Mohr, 2010). 메타분석을 위해 최종 선정된 논문의 출간오류 분석 결과는<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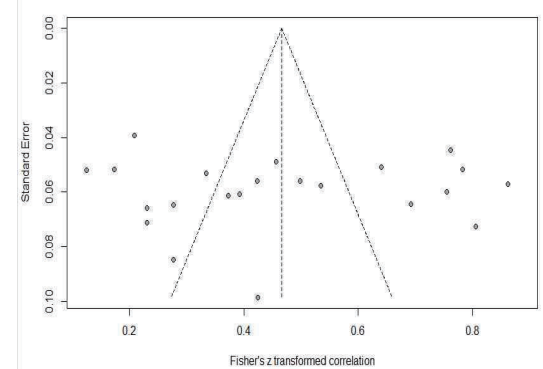
① 혁신성 → 재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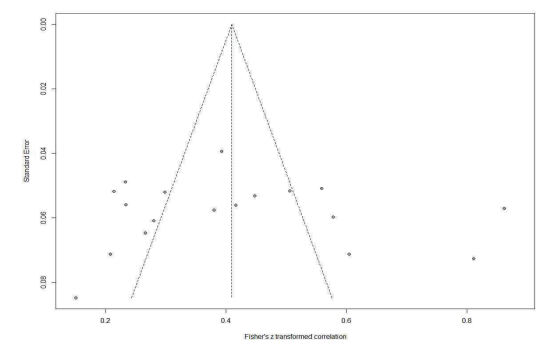
② 위험감수성 → 재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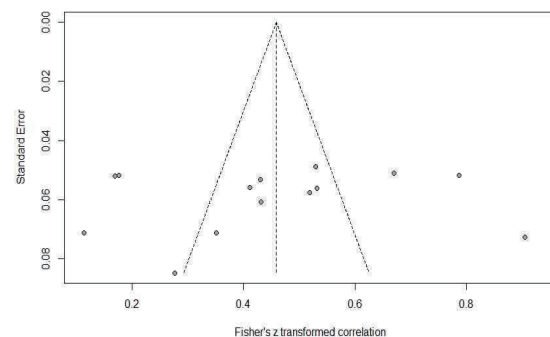
③ 진취성 → 재무성과



④ 혁신성 → 비재무성과



⑤ 위험감수성 → 비재무성과



⑥ 진취성 → 비재무성과

<그림 3>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Funnel Plot

출간오류 분석은 <그림 3>과 같이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 수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면 출간편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funnel plot은 수평축에 효과크기를, 수직축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들은 그래프 상단에 위치하며,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 주변에 몰려 있다. 여기서 대각선은 각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일부 비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출간오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대칭 현상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Egger et al.(1997)의 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기업가정신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 구분    | t     | p-value(p>0.05) |
|-------|-------|-----------------|
| 혁신성   | 0.54  | 0.59            |
| 위험감수성 | -1.10 | 0.28            |
| 진취성   | 0.04  | 0.97            |

<표 6> 혁신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혁신성의 오류(bias)의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0.54$ ,  $df=34$ ,  $p=0.59$ )을 알 수 있다. 즉,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가 없다는 영가설( $bias=0$ , 즉 funnel plot의 대칭)을 기각하게 되어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황성동, 2015). 위험감수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1.10$   $df=27$ ,  $p=0.28$ )을 알 수 있다. 진취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0.04$   $df=21$ ,  $p=0.97$ )을 알 수 있다.

<표 7>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 구분    | t     | p-value(p>0.05) |
|-------|-------|-----------------|
| 혁신성   | 0.14  | 0.89            |
| 위험감수성 | 0.30  | 0.77            |
| 진취성   | -0.42 | 0.68            |

<표 7> 혁신성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0.14$ ,  $df=20$ ,  $p=0.89$ )을 알 수 있으며, 위험감수성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도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0.30$ ,  $df=16$ ,  $p=0.77$ )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취성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t=-0.42$ ,  $df=12$ ,  $p=0.68$ )을 알 수 있다.

안정성계수는 메타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즉  $p>0.05$ 가 되도록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누락

이 된 연구의 수를 의미한다. 이 누락이 된 연구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출간오류의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출간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오류가 연구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Duval & Tweedie(2000)가 개발한 trim-and-fill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8>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 trim-and-fill 검증

| 기업 성과  | 기업가 정신 | 투입 이전 |        | 투입 이후  |        |
|--------|--------|-------|--------|--------|--------|
|        |        | k     | ESr    | k      | ESr    |
| 재무 성과  | 혁신성    | 36    | 0.4249 | 36(0)  | 0.4249 |
|        | 위험 감수성 | 29    | 0.3546 | 35(+6) | 0.3955 |
|        | 진취성    | 23    | 0.4327 | 24(+1) | 0.4171 |
| 비재무 성과 | 혁신성    | 22    | 0.4357 | 22(0)  | 0.4357 |
|        | 위험 감수성 | 18    | 0.3915 | 18(0)  | 0.3915 |
|        | 진취성    | 14    | 0.4231 | 14(0)  | 0.4231 |

메타분석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 재무성과와 혁신성의 관계는 0.4249, 위험감수성은 0.3546, 진취성이 0.4327 평균효과크기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비재무성과와 혁신성의 관계는 0.4357, 위험감수성이 0.3915, 진취성은 0.4231로 전체 효과 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trim-and-fill 방법을 사용한 결과 재무성과와 위험감수성의 관계에서 6개의 연구를 투입했을 때 효과크기는 0.04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와 진취성의 관계에서는 1개의 연구를 투입했을 때 효과크기가 0.015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출간오류가 확인되었으나 오류의 영향력이 미미하여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4.3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영향력 비교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는 [표 9]와 같다.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순위를 보면 혁신성이 비재무성과를 43.57%, 혁신성이 재무성과를 42.49%, 진취성이 비재무성과를 42.31% 증가시킨다. 다음으로 진취성이 재무성과를 41.71%, 위험감수성이 재무성과를 39.55%, 위험감수성이 비재무성과를 39.15%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회귀검증 결과

| 순위 | 구분            | 영향     |
|----|---------------|--------|
| 1  | 혁신성 → 비재무성과   | 43.57% |
|    | 혁신성 → 재무성과    | 42.49% |
| 2  | 진취성 → 비재무성과   | 42.31% |
|    | 진취성 → 재무성과    | 41.71% |
| 3  | 위험감수성 → 재무성과  | 39.55% |
|    | 위험감수성 → 비재무성과 | 39.15% |

## V. 결론

###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이진석, 2017).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기업가정신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분석과 메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Riss, 네이버 학술정보, KISS에서 기업성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검색된 51편 중에서 효과 크기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t 검증) 상관계수가 산출되어 있는 논문 총 3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인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은 기업의 성과지표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하여(성필석, 2019; 김상화, 2022; 정우진, 2012) 메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순위를 분석한 결과 혁신성→비재무성과, 혁신성→재무성과, 진취성→ 비재무성과, 진취성→ 재무성과, 위험감수성→ 재무성과, 위험감수성→ 비재무성과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 혁신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기회와 신규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자보다 먼저 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모든 요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위험감수성이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감수성은 CEO가 위험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성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산업 및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업의 무리한 도전이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창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다양한 관점과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다수 연구자들의 실증연구를 분석하여 기업가정신(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이 기업성과(재무적/비재무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발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에 활용된 모든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효과크기)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기업가정신 중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과요인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기업가정신 변인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효과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까지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의 기업가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기업성과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어떠한 요소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들의 목표설정이나 방향성 제시 및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의 대표자,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들까지 함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기업성과에 있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 요인에 대해 파악하여 적절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1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분석의 경우 상당한 연구의 표본수집이 중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주제 및 연구의 변수 간 비교·분석이 중요한데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의 수가 적어 변수 간 동일선상의 비교에 큰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 간 연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연구 방법의 차이 등이 엄연히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변수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측정 지표로 사용하여 집계를 한 점이다.

둘째, 연구결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도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내 직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 및 창업자들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기업성과의 하위 수준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연구로서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률 등이 있고, 비재무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는 고객만족도, 직무만족, 성장가능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 하위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메타분석의 연구 문헌 선택에 있어서 최근 22년간의 국내 논문 중에 일부 학술지, 박사학위논문 위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후 국내 석사논문 및 학술지, 해외논문도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메타분석을 연구하여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별(\*) 표시된 문헌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임
- 강병오(2011).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강석봉(2021).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기업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책임이 기업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강성일(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고봉상(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곽기영(2013).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김광현(2019).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을 기준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김대영(2022).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김명숙·엄현정·양영석(202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16(2), 19-34.
- 김상진(2006). *호텔의 사회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상화(2022).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111-131.
- 김성미(2020).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김우중(2016). *창업가정신과 전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리터러쉬와 학습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은희(2022).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시장 지향성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재근(2010). *가맹점 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이 파트너십과 가맹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정곤(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정기(2019). *창업가정신이 창업가 역량, 경영성과 및 사업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극동대학교.
- \*김준성(2022). *창업기업의 창업자 특성, 혁신 활동, 기술사업화 능력 및 창업 성과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철희(2022). *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 혁신성이 기업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카톨릭관동대학교.
- \*노상부(2011). *한약제조유통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이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매개로 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류길호(2020). *중소제조기업 종사자의 사회적 자본 기술 혁신 역량 기업가정신과 지적자본 및 기업성과의 관계*. 박사학

위논문, 서울벤처대학교.

- \*마창준(2019).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자역량, 학습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 박기용(2011). 외식산업의 기업가정신과 환경요인 및 성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1), 279-298.
- \*박길호(2017).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봉미란(2019). *협동조합의 기업가정신,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성필석(2019). *제약회사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사업화의 결정요인 및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손방화(2020). *국제 기업가정신이 지적자본 및 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송동석(2017). 기업가정신과 경영혁신 역량 활동이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송은실·박준혁·남정민(2021). 한·중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5(4), 71-90.
- \*안형정(2017). *전략적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내부 고객 만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왕기명(2020). *외식업체 경영주의 기업가정신, 전략적 지향성, 학습 지향성 및 경영성과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우대일(2015). *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원혜숙(2014).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유경득(2021). *기업가정신이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평화와 통일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귀현(2019). *철강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조직문화와 경영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상헌·홍아름(2017).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과와 지역사회의 변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글로벌경영학회지*, 14(2), 143-171.
- \*이석근(2020). *사내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 조직유효성 및 인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기업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승일(2017).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이승일(2017). *변혁적 리더십, 사내 기업가정신, 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이준희(201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지훈(2021). *고령 친화 산업체의 사내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유가치창출(CSV)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진석(2017).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혁신,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임진혁(2017).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인지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장기철(2020). *중간관리자의 기업가정신, 관리통제시스템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장원섭(2008). 멘토링 조직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회*, 27(3), 109-138.
- \*장하영(2022).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희망과 창업가정신이 창업 기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자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 \*전혜선(2018). *사회적기업가의 역량과 사회적 가치 추구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 \*정수철(2022).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숙균(2015).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 정연웅·박주현·김상진(2014). 호텔의 조직문화, 기업가정신, 상사의 리더십이 팔로워십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6), 111-130.
- \*정영민(2015). *기업가정신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인간중심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정우진(2012).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본사의 신뢰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정준이·권규미·반성식(2007).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비영리조직과의 파트너십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연구*, 20(4), 73-95.
- \*제영만(2022). *농촌 6차산업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조휘열(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조현진(2006).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내부정치가 결속 및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10(2), 33-34.
- \*최문경(2015).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문화 매개효과와 환경 불확실성 및 경쟁 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최중석(2017).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구*

- 성원의 직무열의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하준철(2020). 기업가정신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시장지향문화의 매개효과와 신뢰 및 공정성 지각의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허봉선(2015).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구상에 관한 통합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보윤·배근석(2017). 사내기업가정신, 인적자원 혁신성이 기업 혁신활동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2(4), 1-14.
- 황성동(2015). R을 이용한 메타분석. 학지사.
- 황성동(2022). R을 이용한 메타분석. 학지사.
- 황춘기·윤지환(2006).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의 영향전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9(4), 187-208.
- Ahn, H. J.(2017). *Impact of strategic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angwon University.
- Bong, M. R.(2019).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cooperative's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Ltd.
- Bonma, T. V. & Clark, B. H. (1988). *Marketing Performance Assessment*. Boston : Harvard Business Press.
- Cho, H. J.(2006). Effect of internal politics between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es on solidarity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Distribution Research*, 10(2), 33-34.
- Cho, H. Y.(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Towar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Choi, J. S.(2017).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of social enterprise managers on the job enthusias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Choi, M. K.(2015).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competition intensity*.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W. M.(2010). Fifty years of empirical studies of innovative activity and performance.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Innovation*, 1, 129-213
- Copas, J. B., & Shi, J. Q.(2000). Reanalysis of epidemiological evidence on lung cancer and passive smoking. *BMJ*, 320, 417-418.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Crit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manahement*, 3, 5-28.
- Covin, J. G., & Slevin, D. P.(1994). Implementing Strategy Missions :Effective Strategy, Structure and Tactical Choi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1, 481-505.
- Dru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uval, S. J. (2005). *The trim and fill method*. In H.R. Rothstein & M. Borenstein(eds),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Prevention, Assessment and Adjustments*, UK: John Wiley & Sons, Ltd.
-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2), 455-463.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5(7109), 629-634.
- Ha, J. C.(202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Market-Oriented Culture and the Regul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Trust and Fairness*. Doctoral Dissertation, Hanbat University.
- Heo, B. S.(2015). *An integrated study on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Hewett, K., & Bearden, W. O.(2001). Dependence, Trust and Relational Behavior on the part of Foreign Subsidiary Marketing Operations : Implications for Managing Global Marketing Operations. *Journal of Marketing*, 65(4), 51-66.
- Higgins, J., & Green, S.(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 Hwang, B. Y., & Bae, G. S.(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in-house entrepreneurship and human resource innovation on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Venture Start-up Research**, 12(4), 1-14.
- Hwang, C. K., & Yoon, J. H.(2006). The impact of the influence strategy of the restaurant franchise company on management performance. **Restaurant Management Study**, 9(4), 187-208.
- Hwang, S. D.(2015). *Meta-analysis using R*. Hakjisa.
- Hwang, S. D.(2022). *Meta-analysis using R*. Hakjisa.
- Im, J. H.(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on Cognitive Succ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Jang, G. C.(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management control system,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middle managers*.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 Jang, H. Y.(202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Hope and Entrepreneurship of Pharmaceutical Company Salespeople on the Expected Performance of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Sehan University.
- Jang, W. S.(2008). The effect of mentoring organizations on non-financial performance. **Korean Vocational Education Society**, 27(3), 109-138.
- Jea, Y. M.(2022).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in the 6th Rural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 Jeon, H. S.(2018).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 competence and pursuit of social values on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 Jeong, J. Y., Kwon, G. M., & Park, S. S.(2007).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nership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 Management Research**, 20(4), 73-95.
- Jeong, Y. M.(2015).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financi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human-oriented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Jung, S. C.(2022).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Jung, S. G.(2015).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twork*. Doctoral Dissertation, Nambu University.
- Jung, W. J.(2012).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Restaurant Franchise Firm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rust Mediation Effect of Headquarter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 Jung, Y. W., Park, J. H., & Kim, S. J.(2014). The effect of the hotel's organizational culture, entrepreneurship, and boss' leadership on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urism and Leisure Studies**, 26(6), 111-130.
- Kang, B. O.(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CEOs of SMEs on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ang, S. B.(202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SME manager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 a pandemic situ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Kang, S. I.(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Owners in Tourism*. Doctoral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Kanter, R. M.(1983). *The Change Master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im, C. H.(2022).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human resource innovation on entrepreneurship's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Kim, D. Y.(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SG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 Kim, E. H.(2022).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market orient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network 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 Kim, J. G.(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 Franchise Business Operators on Partnership and Franchise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Doctoral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 Kim, J. G.(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Entrepreneurship Contest and the Adjus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J. K.(2019).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ship Capacity, Management Performance, and Business Continuation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Far East University.
- Kim, J. S.(2022).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ounder characteristics, innovation activitie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and start-up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Kim, K. H.(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in SMEs on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Based on People-centered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Studies.
- Kim, M. S., Um, H. J., & Yang, Y. S.(2021).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of technology start-up companies on corporate performance.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16(2), 19-34.
- Kim, S. H.(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Korea Career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ssociation**, 6(3), 111-131.
- Kim, S. J.(2006). *The effect of hotel social capital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S. M.(202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Will to Start a College Stud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Kim, W. J.(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Orienta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Controlled Mediation Effect of Digital Literacy and Learning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o, B. S.(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 Kwak, K. Y.(2013). *The effect of glob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in the supply chain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SME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Lassen, A. H., Gertsen, F., & Riis, J. O.(2006). The nexu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radical innovation.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15(4), 359-372.
- Lee, G. H.(2019).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in Steel Compan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ment Innov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J. H.(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ee, J. H.(2021). *The effect of in-house entrepreneurship of elderly-friendly industries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hared value creation (CSV).*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ee, J. S.(201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innov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S. G.(2020). *The effect of in-house entrepreneurship on self-efficac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ognitive performance: centered on service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Lee, S. H., & Hong, A. R.(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Transformation of Local Communities - Focusing on Social Enterprises in Gyeonggi-do-. **Journal of the Global Management Society**, 14(2), 143-171.
- Lee, S. I.(2017). *Effect of leadership on innovation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Lee, S. I.(20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house entrepreneurship, relationship of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centered on cooperatives*. Doctoral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 Lumpkin, G., & Dess,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 C. J.(2019). *Effect of entrepreneurship, managerial competency, and learning orient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on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hrand Nevin, J. R.(1990). Communication Strategies in Marketing Channels :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54, 36-51.
- Park, G. H.(201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on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 Park, K. Y.(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formance in the Restaurant. **Industry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1), 279-298.
- Ro, S. B.(201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processes in the herbal medicin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Ryu, G. H.(2020).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entrepreneurship and intellectual capital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SME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 Schumpeter, J.(1950). *"Capioalism, Socialisn, and Democracy"*, 3re ed. New york: Harper and BrotTers Publishers.
- Son, B. H.(2020).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on intellectual capital and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Dongui University.
- Son, D. S.(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novation Capability Activitie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 Song, E. S., Park, J. H., & Nam, J. M.(2021). The effect of Korean-Chines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Korea Career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ssociation**, 5(4), 71-90.
- Sterne, J., Egger, M., & Mother, D.(2010). *Chapter 10: Addressing reporting Biases*. In Higgins, J., & Green, S(Eds.) *Cochrae Handbooks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Chichester (UK) : John Wiley & Sons.
- Sung, P. S.(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Timmons, K.(1990). **New Venture Creation**. Lrwin. Homewood.
- Wang, K. M.(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trategic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restaurant owners*.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 Won, H. S.(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CEO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n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Gachon University.
- Woo, D. I.(201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on entrepreneurship,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Yoo, K. D.(2021).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cusing on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Peace and Un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Young, M. J.(2015).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Financi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centered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Venturing**, 6, 258-282.

[abstract]

# A Meta-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 since the 2000s Focusing on Domestic Empirical Research

Sumi Son\*, EunSil Song\*\*, Jungmin Nam\*\*\*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initiative, risk tolerance, and innov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Among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corporate performance, a total of 51 theses from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in South Korea between 2000 and 2022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Among those theses, 39 were finally selected after excluding 12 theses considered insufficient to be used as research data since they lacked statistics, such as correlation coefficient. An average effect size analysis, publication err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variables for the 39 finally selected thes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verage effect size using a forest plot, all presented static results. Second, the publication error analysis resulted in no publication error since the diagram (funnel plot) was symmetrical vertically in the center. Thir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financial performance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mplies that academic significance has been brought since many researchers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rough empirical studies. Entrepreneurship,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is a capability required from members and entrepreneurs who prepare to open a business as well as from CEOs of companies. This study intends to enable entrepreneurship to suggest a direction for companies and present the grounds for establishing government policies to enhance entrepreneurship in the future.

**KeyWord:** Entrepreneurship, Business performance, Meta-analysis

\* First Author,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uture ICT Convergence and start-up, careersm01@naver.com

\*\* Co-Author,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uture ICT Convergence and start-up, doto31@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uture ICT Convergence and start-up, namjm@dankook.ac.kr